

강변따라 펼쳐진 산사... 남도 정신의 寶庫



연곡사 '동승탑'

맞 올리는 江 동서통합시대 화합의 江 섬진강

시찰벨트

1500년 역사 '화엄사'·벚꽃 수려한 '쌍계사'

320여점 문화재 간직 '섬진강 문화의 원형'

현대인에 여유 선물... 주변 관광자원 풍부



천은사 '금동불감'

물 맑고 골 깊은 섬진강 일대에는 구례 화엄사, 사성암, 곡성 도림사, 구례 천은사, 연곡사, 하동 쌍계사 등 보물 같은 '사찰 벨트'가 펼쳐져 있다.

이들 사찰은 종교적 기능을 넘어 현대인에게 여유와 평화를 선사하는 소중한 공간이다. 해질 녘, 고즈넉하게 울려 퍼지는 풍경소리와 넉넉한 절집은 길손의 지친 몸과 마음을 풀어주기에 충분하다. 못난 놈, 모난 놈 가리지 않고 두 손을 간절히 모아 합장을 하는 화합의 장이기도 하다.

또 연곡사 동승탑(東僧塔·국보 제53호) 등 수많은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는 이들 사찰은 섬진강 문화의 원형이기도 하다. 정부의 동서통합시대 조성 사업에 따라 섬진강 일대 사찰이 다시 한번 조명받는 것도 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한 번이라도 지리산과 섬진강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화엄사, 연곡사, 쌍계사라는 이름이 귀에 익을 것이다. 지리산 계곡에 자리 잡은 이들 사찰은 지리산과 섬진강이 만들어낸 위대한 유산 중 하나이며, 남도 정신의 보고이다.

구례 화엄사는 삼국통일 전인 554년에 창건됐다. 연기조사에 의해 세워졌는데, 그의 모습은 경내 석등을 이고 있는 석상의 모습에 남아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다.

화엄사에는 많은 부속 건물과 귀중한 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석등이 아름답다.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거대한 석등은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연곡사를 지키고 있다. 또 현존하는 국내 최대 목조건축물 각황전도 놓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사성암도 구례가 품은 빼놓을 수 없는 사찰이다.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오산에 자리한 사성암은 흡사 절벽 위에 지어진 듯 하다. 이곳에서는 길게 굽어쳐 흘러가는 섬진강과 지리산을 볼 수 있다. 사성암은 여느 절과는 달리 넓은 마당이 없다. 대신 가파르게 올라가는 돌계단이 독특한 풍경을 자아낸다. 좁은 돌계단 옆에는 1m높이의 돌담이 있고,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이 저마다 소원을 기원하면 이름을 적어놓는 기와가 가지런히 포개져 있다.

사성암 법당 안에는 마애여래일상(전남유형문화재 제220호)을 모셨다. 약 25m의 기암절벽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왼손에는 약사발을 들고 있다.

하동 쌍계사는 벚꽃으로 더 유명하다. 해마다 봄이면 화계장터와 쌍계사 '십리벚꽃길'에서는 화려한 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길가의 벚나무는 솜털 같은 꽃송이를 달고 하얗게 피어선다. 40~50년 된 벚나무들이 가지와 가지가 맞닿아 있어 흔히 '벚나무 터널'로도 부른다.

섬진강 사찰 일대의 자연 환경도 눈여겨봐야 한다.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천은사에서 토종 텃새 남비둘기 13~16마리만 서식하고 있어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남비둘기는 일명 양비둘기로 불리는 토종 텃새이며 희귀종이다.

연곡사는 피아골 단풍으로도 더욱 유명하다. 해마다 이 일대에서는 피아골단풍축제가 열린다. 표고막터에서 삼홍소로 이어지는 약 1km구간의 울긋불긋한 단풍터널은 피아골에서도 백미로 꼽히는 명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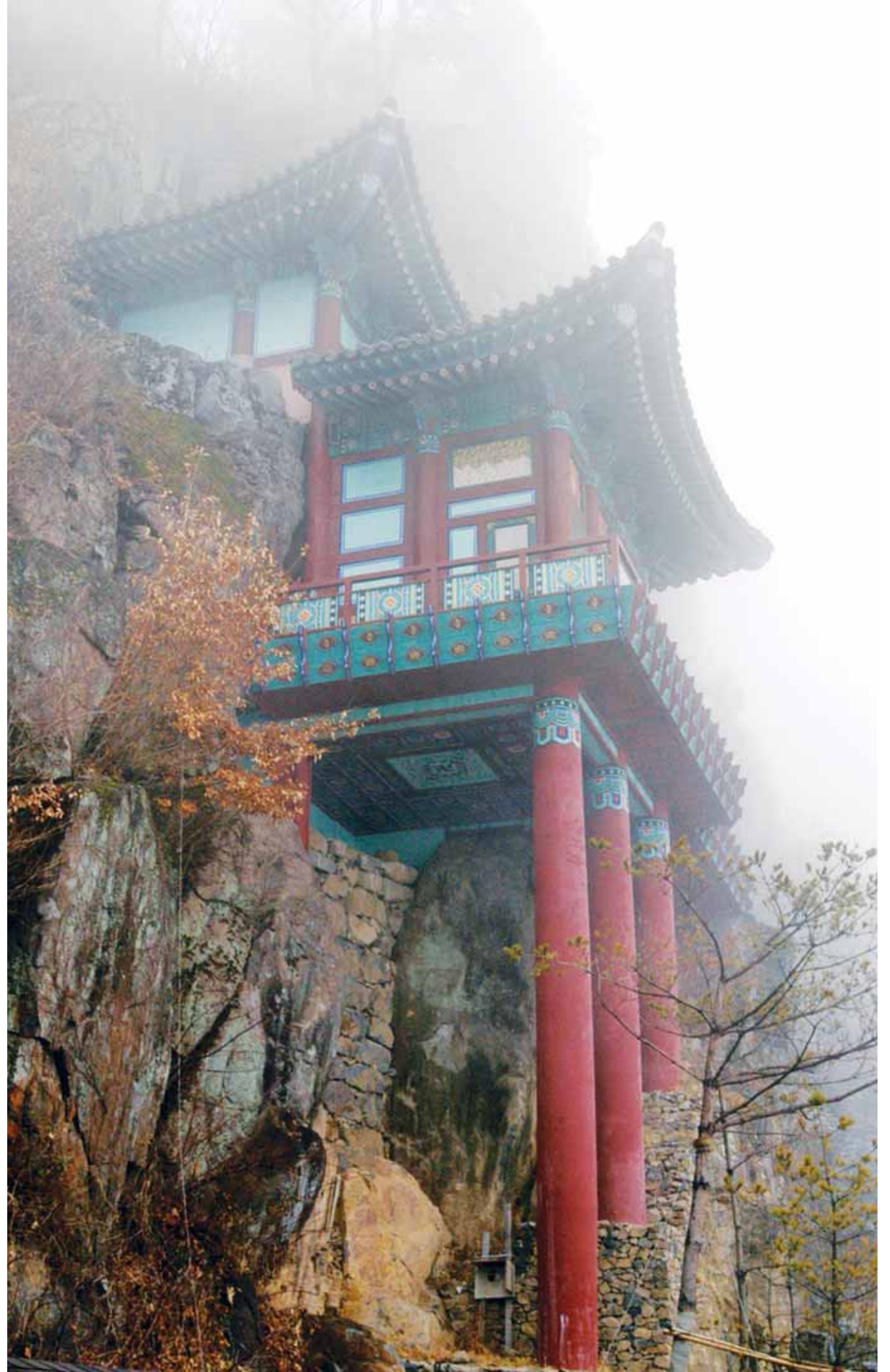
이들 사찰은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유물 창고'이기도 하다. 웅성한 불교문화 덕분에 국내 여느 사찰에 승탑과 승탑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승탑 중의 승탑'은 구례 연곡사 동승탑(東僧塔·국보 제53호)이다.

또 화엄사, 쌍계사 등의 고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79점(국보 10점, 보물 51점, 사적 및 명승 9점, 천연기념물 9점)과 도지정문화재 242점 등 다수의 문화재가 있다.

쌍계사에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두 손으로 연꽃을 받쳐든 보살형 석가모니를 묘사한 형식의 괘불도(보물 제1695호)가 있다. 쌍계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동종(보물 제1701호·높이 94cm)은 조선후기에 제작된 동종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큰 편이다.

이 밖에 연곡사 소요대사탑(보물 제154호)과 북 승탑(국보 제53호)도 우리가 소중하게 보존해야 할 문화재다. 천은사 금동불감(金銅佛龕·제1546호)과 극락전 아미타후불탱화가 보물(924호)로 지정돼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구례 사성암 약사전 전경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